



EKOLO



에콜로 소식

2026년 4월

일상 속 소소한 사랑의 진동을 모아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다!

보이지 않던 사랑이
꽃으로 드러난 순간

파격



목 차

빛의 인사

- “파격“
- 표지 사진: 영취산 진달래 군락

함께 나누는 이야기

- 에콜로 캔디 온라인 판매 재개

에콜로 에세이

- 인간이 가진 대체불가 기술

한 잔의 문화

- 섹션 소개
- Chris Botti – When I fall in love

내몸내가

- 섹션 소개
- Deep Breathing

에콜로 정보

함께 나누는 이야기

에콜로 캔디 온라인 판매 재개

한동안 품질로 인해
에콜로 캔디의 온라인 판매가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 덕분에
이제 다시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조용한 여유와 부드러운 즐거움으로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콜로 샵](#) ▶





에콜로 에세이



- 인간이 가진 대체불가 기술 -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기계에게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일들까지도
이제는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사랑을 ‘생산’ 해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조용히 이해해 주는 마음,
말 한마디에 담기는 온기—

이 모든 것은
어떤 동물도, 기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만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깊어지고,
온 우주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물리학을 초월한 속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 초월적 능력, 즉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사용할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기술은
더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세상에서
인간의 가장 값진 능력은
사랑을 더 잘 생산하는 능력 아닐까요?

우주를 넉넉히 적시는
밝고, 맑고 찬란한 빛을
매일 생산하는 고품격 미래 직업,
추천드립니다.





한 잔의 문화



섹션 소개

익숙했던 ‘회원 작품관’ 이 새로운 이름과 마음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가끔은 “내 마음이 굳어버린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야들야들했던 젊은 시절,
감성의 불꽃이 문득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한 잔의 문화’ 는
그런 순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초대장입니다.
이야기와 노래, 그림과 시처럼
다양한 문화의 조각들이 모여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를
다른 이들의 감성이
당신의 마음을 살짝 두드릴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색깔의 온기를 전해 받고,
잠시 잊고 지냈던
감정의 곁을 다시 어루만집니다.



- Chris Botti – When I Fall in Love -

해가 천천히 기울어
하루의 빛이 붉은 부드러움으로 녹아갈 때,
우리의 리듬도 그렇게 물들며 느려집니다.

Chris Botti의
When I Fall in Love는
그런 시간에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트럼펫의 첫 음이
석양의 빛처럼 번지며,
마음의 결을 따라
조용히 스며듭니다.

선율은 서두르지 않고,
빛이 사라지듯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붉으면서도 푸른
설명할 수 없던 감정들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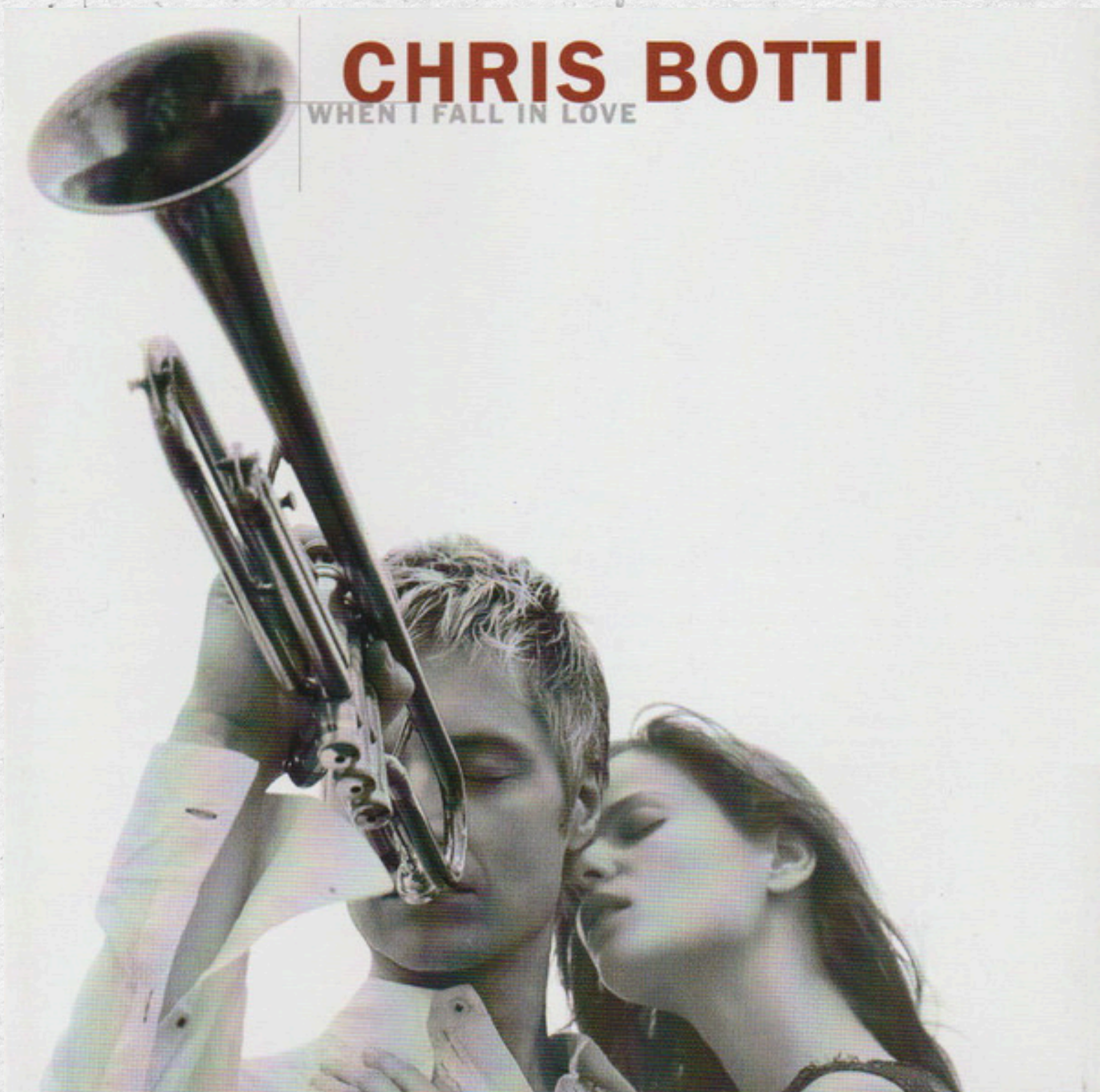
사랑은 어찌면
이와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강하게 남기기보다
은은하게 물들고,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는 것.

하루가 저무는 이 시간,
이 한 곡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셔도 좋겠습니다.

붉은 톤으로 스러지는 하루의 빛 사이로,
스며들어와 은은이 퍼지는
시원한 빛이 있습니다.





내몸내가



‘내몸내가’ 섹션 소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건강은 가능한 한 일상에서
스스로의 의지와 지혜로써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내몸내가’ 섹션은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건강의 근원적 원리를 이루는
불변의 과학적 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알고 실천하면 좋을
건강 과학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
그 여덟 글자의 다짐을 한 걸음 더 친근하게 담아
이제 ‘내몸내가’ 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Deep Breathing

우리는 지금
AI 의 능력을 키워주는
‘Deep Learning’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계는 점점 더 깊이 학습하고,
문명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간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의외로 잊고 지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식이 조율된 호흡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을 넘어,
뇌척수액(CSF)의 흐름을 움직여
뇌 환경을 정돈하는 중요한 생리적 메커니즘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우리는 하루에 수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숨이
‘의식이 조율된 호흡’일까요?

기계는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는 그 순간,
우리의 몸과 뇌는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연마해야 할 능력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다루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Deep Learning의 시대,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본질적인 기술—
Deep Breathing.



REFERENCE

Lim, S., Cogswell, P.M., Jacobson, D.N. et al. Human cerebrospinal fluid net flow enhanced by respiration during the awake state. Nat Commun 16, 11499 (2025).
<https://doi.org/10.1038/s41467-025-66548-4>



에콜로 정보



[에콜로 대문 사이트 ▶](#)

[에콜로 샵 ▶](#)

[회원가입 바로가기▶](#)

[에콜로 선언서 ▶](#)

[“한잔의 문화” 섹션 참여 ▶](#)

[캔디 체험 설문이벤트▶](#)

[에콜로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에콜로 회원 맛집 이벤트▶](#)

[플로로탄닌 과학 문헌 사이트 ▶](#)

[무엇이든 건의/문의 하기 ▶](#)

